

사회적 지원 효과의 구조적 관계 분석에 관한 일 연구¹⁾

최 용 성 최 광 선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의 인과관계와 개인의 내외통제성향에 따라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 376명을 내외통제성향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변인의 관계에 대한 인과모형을 설정하여 두 집단 간 차이를 공변량구조분석(LISREL-VIII)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내외통제성향에 따른 사회적 지원의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내적통제성향 집단이 외적통제성향 집단보다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스 상황을 인지하고 평가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을 대처자원으로 더 많이 활용하여 대처행동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개인의 내외통제성향의 효과를 주장하는 Lefcourt(1984) 등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원은 개인의 내외통제성향에 따라 스트레스 상황을 평가하고 대처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현대인은 각종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때 타인의 위로와 관심이 개인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즉, 사회적 지원은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고, 대처전략으로 활용되어 그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Cohen & Wills, 1985; Kessler et al., 1985; Fawzy et al., 1995). 그러나 이 연구들은 시간과 성격

변인이 개입되어 변인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혀 내지 못하고, 사회적 지원의 구성개념과 측정기술이 다양하게 사용되어 연구결과의 일관성이 없었다(Sarason & Sarason, 1985).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이 건강에 미치는 과정변인들에 관한 선행 연구를 면밀히 검토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그들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원이란 '개인 주위에 있는 중

1) 이 연구는 2000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요한 타인에게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지각된 지원이 그 개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중대한 효과를 미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개인의 사회적 지원은 그를 지원해 주는 지원자와 지원 내용으로 구성된다.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친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이경희, 1995), 일반인은 친구, 모, 배우자, 형제, 자식, 부의 순이며(Griffith, 1985), Tilden과 Galyen(1987)은 배우자, 연인, 가족, 친구, 이웃 사람, 성직자 순이라고 하였다. House(1981)는 지원 내용의 다차원적인 면을 고려하여 정서적 지원, 감정적 지원, 정보적 지원 그리고 도구적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Thoits(1982)는 사회적 지원을 사회-정서적 지원(애정, 이해, 수용, 자존심 고양)과 구체적 지원(정보, 조언, 책임 있는 도움, 경제적 지원)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지원자와 지원 내용의 측정은 한 개인이 사회적 망에 통합되어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구조적 측면과 스트레스 사태에 대응과 자원들의 이용가능성을 평가하는 기능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Cohen & Same, 1985). 구조적 측면은 개인이 사회적 환경에서 중요한 타인과 유대관계(embedding relation)를 맺는 심리적인 공동체 의식(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Sarason, 1974). 사회적 유대성은 주로 사회 망 분석으로 한 개인이 타인과 맺고 있는 구조적 속성인 밀도(density), 상호성(reciprocity), 중복성(multiplicity),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을 측정한다(Mitchell & Trichett, 1980; Wellman, 1981).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직접 밝혀내지는 못한다.

한편, 기능적인 측면은 Lazarus와 Folkman(1984)의 평가적 모델(appraisal model)에서 유래한 것으로 개인이 타인과 맺는 신뢰관계의 정도를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즉, 이것은 개인이 지각한 지원(perceived support)으로 잠재적인 위협상황에서의 대처자원을 평가하는 것이다. 지각된 지원의 척도는 개인이 지각한 지원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과 적절성(adequacy)의 두 차원으로 구성된다(Cohen & Doberman, 1983; Holahan & Moos, 1981; Procidano & Heller, 1983; Turner et al., 1983). 이 척도는 지원자의 수나 사회적

접촉의 양을 계량화하지 않고, 지원에 대한 지각된 만족이나 적절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사회적 유대성의 척도와는 구별된다.

최근 연구자들은 지각된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왜냐하면 개인이 객관적인 지원원(support resource)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가 지원을 받았다고 지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으며, 또한 개인이 외부에서 지원을 받았을 때 그것을 중요한 지원으로 지각하지 않으면 진정한 지원으로써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Vaux, 1988; Cutrona, 1986). 개인이 타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지각 자체가 적응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그 지각된 지원의 대상이 반드시 실제하는 환경적 지원원일 필요는 없다. 이러한 지각된 사회적 지원을 개인이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았는가 보다는 그 지원을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적 망이나 실제로 제공되는 수령된 지원(received support)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Sarason, Sarason, Hacker, & Bashman, 1985; Sarason et al., 1990).

많은 연구에서 개인이 최근에 지원을 받은 특별한 사례의 수로 측정하는 수령된 지원은 개인의 적응과 상관이 낮았지만(Cutrona, 1986; Sarason et al., 1990), 지각된 지원은 대부분 일관성 있게 높은 상관을 보였다(Henderson et al., 1981; Barrera, 1986; Kessler et al., 1994). 오히려 수령된 지원은 지원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원으로 갈등과 무력감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Cohen & Wills, 1985). 따라서,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인지적인 매개변인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사회적 지원 망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치보다는 사회적 지원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지각이 보다 정확한 예측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사회적 지원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개인에게 효과적인 것은 그에게 부족한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스트레스-적응 과정에서 사회적 지원이 개입하는 두 지점을 제시하고 있다(Cohen & Mckey, 1983; Cohen & Wills, 1985). 첫 번째 지점은 사회적 지원이 개인의 객관적인 스

트레스 사태와 주관적인 스트레스 사이에서 매개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지원이 개인의 자아에 영향을 미쳐서 객관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주는 잠재적인 상해를 제정의 하고, 스트레스 상황의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함으로써,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완화시키는 완충역할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지점은 사회적 지원이 개인의 특정한 상황을 스트레스로 평가한 후에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반응을 억제하고 적응적 반응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즉, 이 지점은 개인과 환경간의 구체적인 상호과정인 스트레스로 경험되고, 또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하는 과정이다(Lazarus & Folkman, 1984). 평가는 일차적, 이차적 평가로 구분된다. 일차적 평가는 그것이 스트레스 상황인가를 평가하는 것이고, 이차적 평가는 일차적 평가를 한 결과,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결정되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이차적 평가는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대처행동을 할 수 있고 그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며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포괄하는 복잡한 과정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대처자원과 대처 선택안에 대한 평가이다. 따라서, 개인에게 지각된 사회적 지원은 스트레스 상황을 낮게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대처능력을 평가하게 하여 결국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Heller와 Swindle(1983)도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원은 대처자원에 대한 평가이며, 사회적 지원의 추구는 대처행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지원과 대처행동간 잠재적인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대처를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인이 소유자원을 초과하는 어떤 특정한 내적, 외적 요구를 인지적, 행동적인 노력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개인이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였을 때 사회적 지원에 만족한 사람은 문제 중심적 대처, 정서 중심적 대처 등과 같은 적응적 대처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Sarason et al., 1990;

Kessler et al., 1994; Terry et al., 1995).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하면, 사회적 지원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원 망 내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도록 하여 자존감과 자아개념을 안정되게 유지 시킴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줄이고, 또 스트레스를 지각한 상황에서 그것을 평가하여 개인의 대처행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스트레스의 역기능을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적 지원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관성이 없었다.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의 성격변인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Roos & Cohen, 1987). Henderson(1977)은 개인이 사회적 지원을 지각할 때 성격특성이 개입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개인의 외적통제성향은 개인간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내적통제성향은 타인들에 의하여 또는 타인들에게 부정적인 견해를 더욱 많이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지원의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도 피지원자의 성격특성에 따라 사회적 지원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지원은 사회경제적 배경(교육)과 성격특성(내외통제성향과 사회적 지원 추구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면에서 개인적 대처자원을 소유한 사람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지만, 그러한 자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Riley & Eckenrode, 1986). 또한 Husaini(1982) 등은 사회적 지원과 개인능력(personal competence)을, Kobasa와 Pucetti(1983)는 사회적 지원과 강인성(hardiness)을 결합하여 스트레스와 적응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개인능력과 강인성을 소유한 사람이 사회적 지원을 받을 때 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Kobasa(1982)는 자신이 무력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각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Husaini(1982) 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격적으로 책임감이나 독립심이 부족한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Riley와 Eckenrode(1986)는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스로 대처행동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지원을 받는 것은 자신의 대처노력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인차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성격변수가 내외통제성향이다. Husaini(1982) 등은 개인 능력을 '환경과 자신에 대한 통달감'이라고 정의하면서 이것은 내외통제성향과 개념적으로 유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Kobasa(1982)의 강인성 개념에도 그 하위척도에 내외통제성향이 포함되어 있다. 내외통제성향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내적통제자들이 외적통제자들 보다 정보에 관련된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직무와 무관한 사고는 배제하며(Lefcourt, 1984), 부정적인 피이드백에 대한 회상을 적게 하지만, 문제점을 다루려는 행동을 더 많이 하고(Phares et al., 1968), 질병과 치료법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그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적 행동에 사용하였다(Strickland, 1978). 또한, 내적통제자들은 직무와 상황에 내재된 의미가 무엇이고,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 신속히 파악하며(Wolk and Ducette, 1974), 자연 재앙을 당한 후, 문제 중심적인 대처를 주로 사용하였다(Anderson, 1977). 그리고 그들은 사회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떤 즉흥적 만족보다 가치 있는 보상을 원하였고(Strickland, 1978) 욕구좌절의 상황에서 더 건설적인 반응을 보이고 도덕적 판단 기준이 높았으며, 실패에 대한 선입견이 적고, 의사 결정을 할 때 더욱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였다(Brissett and Nowicki, 1973). 이러한 결과들은 내적통제자들이 외적통제자들 보다 유능하고 효율적이며 환경 통제와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사용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을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의 수단으로서 개인에 의해 추구되고 활용되는 효과적인 대처 자원이라고 볼 때, 내적통제자들은 이러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능력이 있으나, 외적통제자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내외통제성향에 따른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스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대처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고,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 그리고 대처 행동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고 한다.

연구모형

연구의 목적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를 기초로 인과모형을 작성하였다. 즉, 스트레스 상황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이 개인의 내외통제성향에 따라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개인이 이용가능한 사회적 지원을 자신의 대처자원으로 활용하는 능력 면에서 내외통제성향에 따른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모형이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상황 그리고 대처행동 변인은 모두 잠재변인이다. 그림 1에서 사회적 지원(ξ_1)은 외생변인이며, 스트레스 상황(η_1)은 내생변인이다. 사회적 지원의 측정변인은 부 지원(χ_1), 모 지원(χ_2), 친구 지원(χ_3), 교수 지원(χ_4)이며, 스트레스의 측정변인은 친구 문제(y_1), 경제 문제(y_2), 가족 문제(y_3), 학업 문제(y_4), 이성 문제(y_5), 가치관/종교 문제(y_6)의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2에서 사회적 지원(ξ_2)과 스트레스(ξ_1)는 외생변인이고, 대처행동(η_1)은 내생변인이다. 대처행동의 측정변인은 문제 중심(y_1), 평가 중심(y_2), 정서적 중심(y_3), 소망적 사고 중심(y_4)의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가설

개인의 내외통제성향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내적통제자들은 외적통제자들 보다 자기관여의 수준이 더 크기 때문에 과업과 무관한 사고를 하지 않으며, 과업과 상황에 내재된 의미와 관련되는 것이 무엇인지 신속히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적통제자들은 실패에 대한 선입견이 적고, 의사를 결정할 때 더욱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따라서, 내적통제자들이 정보에 관련된 단서에 더욱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적인 행동에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을 기초로 가설 1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개인의 내외통제성향에 따라 상황평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효과는 차이가 있는데, 내적통제집단이 외적통제집단보다 그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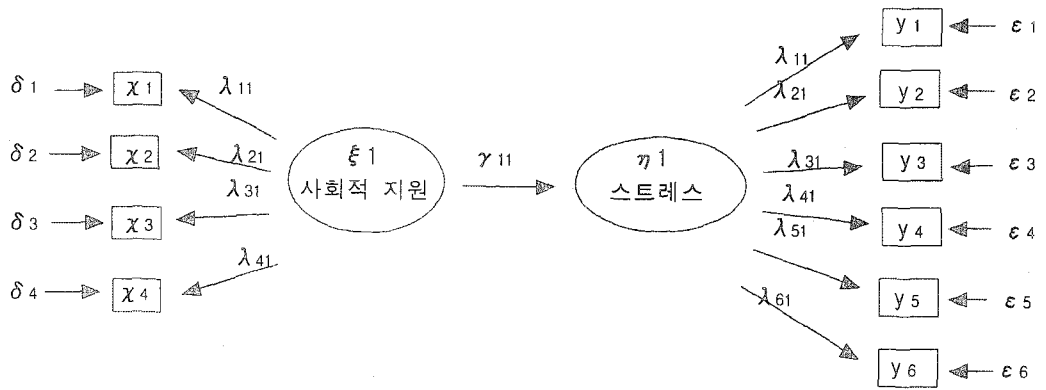


그림 1.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의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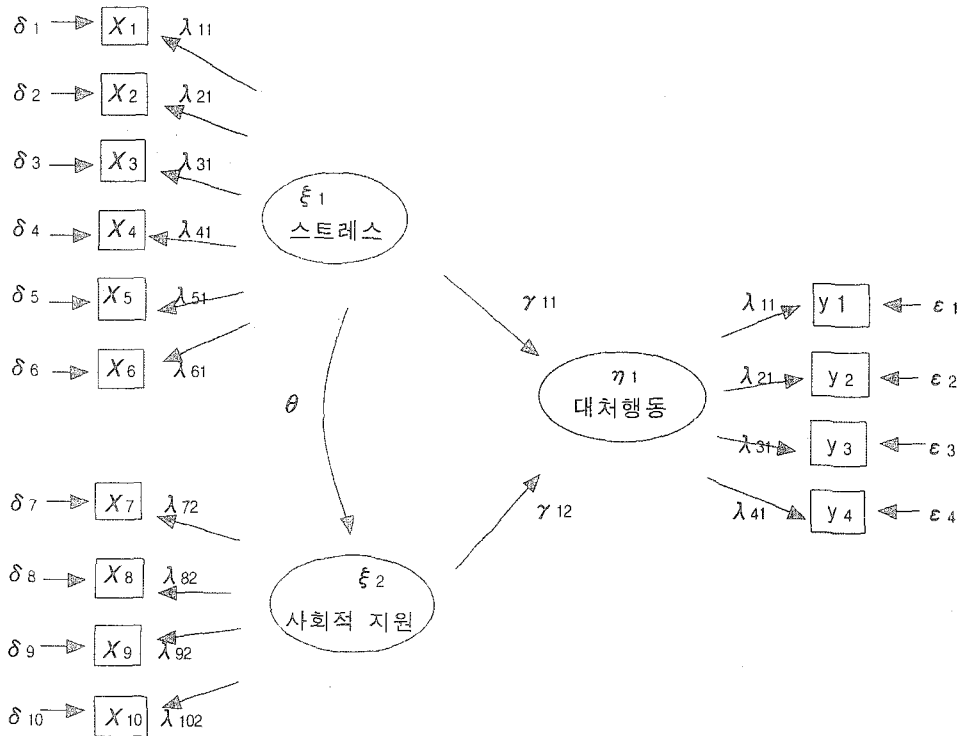


그림 2.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의 연구모형

스트레스를 인지적인 측면에서 보는 연구자들에 따르면, 개인의 대처행동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여기서 사회적 지원은 중요한 대처자원으로 평가한다. 이에 대해 김정희(1987)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대처자원이 풍부하다고 느끼게 되면 그에 따른 대처양식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선행 연구에서 내적통제자들이 외적통제자들보다 정보의 획득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정보를 이용하는 능력이 우수하다고 나타났다.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의 한 방편으로서 개인이 추구하고 활용하는 효과적인 대처자원이라고 볼 때, 내적통제자들은 이 대처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능력이 있으나, 외적통제자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 2. 개인의 내외통제성향에 따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서 사회적 지원의 효과는 차이가 있는데, 내적통제집단이 외적통제집단보다 그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방 법

피험자

피험자는 대구 지역의 G대학, K대학 그리고 M대학 학생 418명에게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대처행동, 내외통제성향의 질문지에 반응케 한 결과, 무성의하게 응답한 42명을 제외한 37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측정도구

사회적 지원의 질문지는 이영자(1996)가 제작한 것으로, 하위변인은 부 지원, 모 지원, 친구 지원, 교수 지원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기까지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값이 클수록 지원자에게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각 하위변인의 Cronbach α 계수는 .74 ~ .85로 나타났다(표 1).

스트레스 척도는 전경구와 김교현(1991)이 제작한 7개의 하위척도로 구분된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척도 각각 10문항씩 70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63 ~ .84로 나타났다(표 1).

대처행동의 척도는 Folkman과 Lazarus(1986)의 대처반응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하위변인은 문제 중심, 평가중심, 정서적 중심, 소망적 사고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각 하위변인들의 Cronbach α 계수는 .67 ~ .88로 나타났다(표 1).

내외통제성향 척도는 Rotter(1966)의 내외통제 척도를 축약한 Valecha(197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1개의 강제 선택형 문항(허구문항 1개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허구문항을 제외한 10개 문항에 대한 단순합계를 지수로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적통제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각 피험자가 응답한 결과의 평균값을 기초로 하여 전체표본의 중앙값 2.60을 구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피험자를 내적통제집단과 외적통제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절차 및 자료 분석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그리고 대처행동에 관한 질문지는 G대학, K 대학, M대학에서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t검증과 상관관계로 내외통제성향 집단간

표 1. 측정변인들이 신뢰도

구분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대처 행동			
	부지원	모지원	친구 지원	교수 지원	친구 문제	문경 문제	가족 문제	학업 문제	이성 문제	가치관 /종교 문제	문제 중심	평가 중심	정서적 중심	소망적 사고 중심
신뢰도	.85	.74	.81	.79	.68	.80	.84	.77	.75	.72	.67	.77	.82	.88

의 기술적인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사회적 지원과 지각된 스트레스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내외통제성향 집단간의 효과와 피지원자가 스트레스를 지각한 경우에 사회적 지원을 대처자원으로 활용하는 정도에 있어서 내외통제성향 집단간의 효과는 LISREL의 multi-sample approach로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과 및 논의

내외통제성향 집단 별로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그리고 대처 행동간의 t-검증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의 결과를 보면, 두 집단은 사회적 지원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내적통제성향 집단이 외적통제성향 집단의 평균보다 모든 변인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내적통제성향 집단이 외적통제성향 집단보다 지각된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경우에도 두 집단은 모든 하위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내적통제성향 집단의 평균이 높았다. 이것은 내적통제성향 집단이 외적통제성향 집단보다 스트레

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특히 대학생들은 경제와 학업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행동에서도 두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내적통제성향 집단이 외적통제성향 집단보다 모든 변인에서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 그리고 대처행동은 그들의 성격성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내적통제성향 집단이 사회적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며, 그 결과 대처행동도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두 집단의 단순상관관계는 표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내적통제성향 집단은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r=.90$ 이하이므로 중다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없었다.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의 관계는 모두 부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스트레스는 적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사회적 지원과 학업 및 경제 문제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크므로($r=-.39\sim-.56$) 사회적 지원자의 지원이 많을수록 학업, 경제에 관한 스트레스가 적어짐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원과 대처행동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모의 지원은 정서적 그리고 소망적 사고 중심 대처행동($r=.42\sim.50$), 친구와 교수 지원은 문제 및 평가 중심 대처행동($r=.40\sim.41$)과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대처행동간에는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친구 문제의 스트레스는 평가 중심 대처행동($r=.42$), 경제 문제는 문제와 평가 중심 대처행동($r=.40\sim.54$), 가족 문제는 문제 중심 대처행동($r=.51$), 학업 문제는 문제 중심 대처행동($r=.61$), 이성 문제는 정서적 중심 대처행동($r=.45$), 가치관 및 종교 문제는 소망적 사고 대처행동($r=.42$)과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각 측정변인의 평균을 보면, 사회적 지원의 하위변인은 모두 5.0 이상이므로 대학생들은 사회적 지원을 평상시 많이 받고 있으며, 특히 어머니의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생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의 경우, 대학생들은 학업과 경제 문제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그들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정서적 그리고 문제 중심 대처행동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잠재변인들의 t 검증

변 인	내부	외부	t
사회적 지원			
부 지원	5.60	5.31	4.21***
모 지원	6.10	5.84	3.28***
친구 지원	5.15	4.76	5.23***
교수 지원	5.10	4.81	3.02***
스트레스			
친구 문제	4.37	4.10	4.05***
경제 문제	5.70	5.64	2.48***
가족 문제	4.24	4.20	2.87***
학업 문제	5.15	4.84	5.24***
이성 문제	4.18	3.70	7.37***
가치관/종교 문제	3.25	3.27	2.40***
대처 행동			
문제 중심	5.84	5.50	3.52***
평가 중심	5.20	4.74	3.40***
정서적 중심	4.34	4.10	3.41***
소망적 사고 중심	3.27	3.07	2.84***

*** $p < .001$

표 3. 내적통제성향 집단의 각 측정변인간 상관관계

	부 지원	모 지원	친구 지원	교수 지원	친구 문제	경제 문제	가족 문제	학업 문제	이성 문제	가치관 종교	문제 중심	평가 중심	정서적 중심	소망적 중심
부 지원	1.00													
모 지원	.71	1.00												
친구 지원	.45	.46	1.00											
교수 지원	.41	.36	.31	1.00										
친구 문제	-.31	-.34	-.48	-.35	1.00									
경제 문제	-.48	-.56	-.40	-.39	.21	1.00								
가족 문제	-.32	-.38	-.21	-.21	.28	.56	1.00							
학업 문제	-.44	-.51	-.40	-.39	.30	.67	.45	1.00						
이성 문제	-.31	-.40	-.54	-.51	.60	.48	.23	.51	1.00					
가치관, 종교	-.34	-.38	-.34	-.32	.20	.10	.48	.32	.30	1.00				
문제 중심	.30	.38	.40	.41	.38	.40	.51	.61	.35	.32	1.00			
평가 중심	.28	.20	.41	.40	.42	.54	.27	.58	.35	.30	.45	1.00		
정서적 중심	.21	.42	.12	.10	.20	.12	.14	.20	.45	.20	.30	.48	1.00	
소망적 사고	.34	.50	.20	.15	.12	.35	.37	.37	.39	.42	.14	.45	.38	1.00
평균	5.61	5.98	5.14	5.09	4.34	4.74	4.51	4.80	4.32	3.62	5.14	5.12	5.32	3.76
표준편차	1.11	.95	1.35	1.12	.95	.98	1.05	1.02	1.32	1.04	1.07	.98	1.29	1.20
첨도	.58	1.26	-.12	.21	-.20	-.08	-.52	-.10	-.31	-.24	-.49	-.25	.08	.97
편포도	-.79	-1.21	-.58	-.55	.08	.17	-.04	.12	-.05	-.09	-.12	-.39	-.38	-1.00

표 4. 외적통제성향 집단의 각 측정변인간 상관관계

	부 지원	모 지원	친구 지원	교수 지원	친구 문제	경제 문제	가족 문제	학업 문제	이성 문제	가치관 종교	문제 중심	평가 중심	정서적 중심	소망적 중심
부 지원	1.00													
모 지원	.61	1.00												
친구 지원	.41	.42	1.00											
교수 지원	.39	.33	.24	1.00										
친구 문제	-.30	-.31	-.38	-.35	1.00									
경제 문제	-.41	-.50	-.30	-.29	.20	1.00								
가족 문제	-.30	-.35	-.21	-.20	.25	.55	1.00							
학업 문제	-.40	-.48	-.30	-.34	.30	.60	.40	1.00						
이성 문제	-.28	-.35	-.45	-.31	.58	.40	.22	.45	1.00					
가치관, 종교	-.30	-.30	-.36	-.42	.20	.10	.44	.30	.30	1.00				
문제 중심	.30	.33	.38	.40	.35	.38	.49	.57	.30	.31	1.00			
평가 중심	.25	.20	.38	.41	.40	.50	.25	.55	.30	.28	.40	1.00		
정서적 중심	.21	.39	.15	.18	.20	.12	.13	.20	.42	.20	.28	.44	1.00	
소망적 사고	.30	.40	.20	.16	.12	.30	.35	.35	.35	.39	.14	.40	.35	1.00
평균	5.45	5.72	5.04	5.00	4.27	4.61	4.44	4.71	4.29	3.58	5.08	5.10	5.22	3.79
표준편차	1.10	1.01	1.32	1.41	1.04	1.00	1.09	1.08	1.17	1.12	1.24	.09	1.35	1.27
첨도	.64	1.67	-.25	-.42	-.18	.15	-.28	.37	-.37	.18	-.27	.14	-.29	.74
편포도	-.89	-1.27	-.56	-.57	.06	.18	-.27	-.06	.07	-.14	-.08	-.31	-.14	.92

외적통제성향 집단의 경우도 측정변인간의 상관관계수가 모두 $r=.90$ 이하이므로 중다공선성의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 측정변인간 상관형태는 내적통제성향 집단보다 대체적으로 약간 낮은 상관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는 모두 부적 상관이다. 특히 사회적 지원과 학업, 경제 문제에서 부적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r=-.29 \sim -.50$). 반면에, 사회적 지원과 대처행동간에는 모두 정적 상관을 보이는데, 특히 모의 지원은 정서적 중심 대처행동($r=.39$)과 소망적 사고 중심 대처행동($r=.40$)에서, 친구 지원은 문제 중심 대처행동($r=.38$)에서, 교수 지원은 평가 중심 대처행동($r=.41$)에서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대처행동간에도 매우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친구 문제에서 스트레스는 평가 중심 대처행동($r=.40$), 경제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는 평가 중심 대처행동($r=.50$), 가족 문제 스트레스는 문제 중심 대처행동($r=.49$), 학업 문제 스트레스는 문제 중심 대처행동($r=.57$), 이성 문제 스트레스는 정서적 중심 대처행동($r=.42$), 가치관과 종교 문제 스트레스는 소망적 사고 중심 대처행동($r=.49$)과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외적통제성향 집단은 내적통제성향 집단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원의 모든 측정변인은 평균이 모두 .50 이상이므로 평상시 대학생들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고 있으며, 특히 어머니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의 경우에 대학생들은 학업 문제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 이성, 친구 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행동은 정서적 중심 대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평가 중심적 대처, 문제 중심적 대처, 소망 중심적 대처 순으로 나타났다.

가설 1은 사회적 지원과 지각된 스트레스간의 인과관계에서 개인의 내외통제성향이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보이는데에 관한 것이다. 이 경우에 일반적인 검증 방법은 개인의 내외통제성향별로 내적통제성향 집단과 외적통제성향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 내에서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를 구하고 Fisher의 Z-transformation을 이용하여 상관계수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은 인과관

계를 밝힐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 한가지 방법은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사회적 지원을 독립변수로 하고 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가정한 후,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양 독립변수의 결정계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상관관계에서 기인된 중다공선성이 발생할 수 있어 해석상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두 변수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에 사회적 지원이 개인의 내외통제성향과 스트레스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내외통제성향과 스트레스간의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외통제성향이 사회적 지원을 경유하여 나타나는 간접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 변수의 영향력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분석 방법은 잠재변인을 가정한 linear equation model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잠재변수간의 구조적 계수(structural parameter)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agozzi, 1980; Blalock, 1971; Costner, 1971).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그림 1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틀 모형을 개인의 내외통제성향 집단에 적용하여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모형의 검증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서 보듯이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간의 경로(γ_{11})가 내적통제성향 집단(.398)이 외적통제성향 집단(.225)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내외통제성향 집단 별로 나타난 경로계수간의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집단별 변량-공변량행렬의 동질성 검사(homogeneity test)를 하였다. 왜냐하면 집단간의 경로계수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분석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집단에 있는 각 측정변인의 측정속성과 인과경로가 일정하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질성 검사를 위하여 모형의 제약조건에 $\theta \epsilon^{(1)} = \theta \epsilon^{(2)}$ (즉, $\Sigma^{(1)} = \Sigma^{(2)}$)를 추가시킨 후, LISREL의 multi-sample approach로 차이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의 변량-공변량행렬의 동질성 가설이 기각되었다($\chi^2_{(44)} = 187.56, p=.000$).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에 대한 내외통제성향 집단간에 사회적 지원의 효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5.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 모형의 계수값

계수	전체집단			내적통제집단			외적통제집단		
	SV	SE	T	SV	SE	T	SV	SE	T
γ_{11}	-.325	.055	-5.021	-.398	.158	-5.012	-.225	.098	-2.861
ζ_1	.795	.121	3.865	.879	.265	3.210	.957	.215	4.098
$\lambda_{\chi_{11}^*}$.784	.000	.000	.784	.000	.000	.600	.000	.000
$\lambda_{\chi_{21}}$.565	.005	11.130	.545	.132	6.718	.521	.196	7.214
$\lambda_{\chi_{31}}$.734	.084	15.101	.714	.147	8.581	.552	.199	8.601
$\lambda_{\chi_{41}}$.587	.023	12.659	.674	.187	7.987	.497	.137	6.046
$\lambda_{\gamma_{11}^*}$.642	.000	.000	.807	.000	.000	.623	.000	.000
$\lambda_{\gamma_{21}}$.864	.164	4.698	.165	.136	2.350	.477	.187	3.981
$\lambda_{\gamma_{31}}$.421	.014	5.358	.587	.217	2.561	.412	.161	3.004
$\lambda_{\gamma_{41}}$.332	.157	4.147	.354	.157	1.473	.222	.146	2.098
$\lambda_{\gamma_{51}}$.121	.187	3.365	.278	.106	2.589	.347	.117	3.241
$\lambda_{\gamma_{61}}$.187	.065	4.487	.224	.149	2.357	.398	.203	3.460

SV: standard value SE: standard errors T: T-value

* : 1로 고정된 모수치

한편, 사회적 지원의 효과가 내적통제성향 집단이 외적통제성향 집단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과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Lefcourt et al., 1984). 즉, 내적통제자들이 외적통제자보다 정보와 관련된 단서에 더욱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은 내적통제성향 집단이 외적통제성향 집단보다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판단에 주로 의지하여 타인의 영향에 덜 민감한 것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또한, 내적통제성향 집단은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책임에 따른 부담감이 포함되어 있거나, 사회적 지원의 개념에 지원의 가용성과 필요성이 혼합되어 있음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가설 2는 개인이 스트레스를 지각한 경우 사회적 지원을 대처자원으로 활용하는 정도에 내외통제성향 별로 차이가 나타나지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사회적 지원과 지각된 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대처행동을 종속변인으로 가정한 후,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집단별 독립변수의 결정계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으나, 역시 상관관계에 기인한 중다공선성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가설

1과 마찬가지로 LISREL의 multi-sample approach를 이용하여 내외통제성향 별로 동질성 검사를 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2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이 모형은 2개의 외생변인과 1개의 내생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생변인들은 어떤 다른 변인으로부터 직접, 간접적인 효과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다.

모형의 검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서 보듯이, 내적통제성향 집단(.631)이 외적통제성향 집단(.472)보다 사회적 지원을 대처 방안으로 사용하는 정도(γ_{12})가 높음을 알 수 있다($\chi^2_{(11)} = 357.47, p=.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이것은 내적통제성향 집단이 외적통제성향 집단보다 관련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Strickland(1978)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원을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의 한 방편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내적통제자들이 외적통제자들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내외통제성향 집단간의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그리고 대처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인과모형을 검증한 결과,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미치는 효과에서 내외통제성향에 따라 차이가 의미 있게 나타났다. 즉, 내적통제성향 집단이

표 6. 스트레스-대처행동 모형의 계수값

계수	전체집단			내적통제집단			외적통제집단		
	SV	SE	T	SV	SE	T	SV	SE	T
γ_{11}	.197	.086	3.004	.089	.156	.701	.187	.213	1.601
γ_{12}	.605	.079	8.087	.631	.160	6.710	.472	.157	5.091
ζ_1	.689	.187	4.680	.531	.169	4.321	.401	.105	4.032
$\lambda_{X_{11}^*}$	1.000	.000	.000	1.000	.000	.000	1.000	.000	.000
$\lambda_{X_{21}}$.301	.098	3.248	.578	.165	3.658	.021	.055	.481
$\lambda_{X_{31}}$.539	.136	4.500	.729	.228	4.101	.339	.191	1.932
$\lambda_{X_{41}}$.288	.169	3.110	.409	.169	2.890	.136	.089	1.587
$\lambda_{X_{51}}$.245	.116	3.234	.338	.225	3.557	.229	.100	1.441
$\lambda_{X_{61}}$.301	.137	3.721	.439	.324	3.681	.281	.158	1.216
$\lambda_{X_{72}^*}$	1.000	.000	.000	1.000	.000	.000	1.000	.000	.000
$\lambda_{X_{82}}$.746	.071	11.001	.811	.159	7.890	7.980	.102	7.248
$\lambda_{X_{92}}$.968	.084	12.698	.996	.136	9.256	8.210	.169	8.630
$\lambda_{X_{102}}$.761	.065	10.113	.751	.178	8.735	5.459	.138	8.117
$\lambda_{Y_{11}^*}$	1.000	.000	.000	1.000	.000	.000	1.000	.000	.000
$\lambda_{Y_{21}}$.564	.098	6.001	.546	.165	3.961	.703	.164	5.761
$\lambda_{Y_{31}}$	-.016	.034	-.354	.191	.091	1.873	-.100	.091	-1.267
$\lambda_{Y_{41}}$.336	.101	4.032	.244	.094	2.659	.399	.135	4.011

SV: standard value SE: standard errors T: T-value

* : 1로 고정된 모수치

스트레스 상황을 인지하는데 사회적 지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사회적 지원을 대처행동으로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적 지원이 개인의 성격성향에 따라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은 개인의 내외통제성향에 따라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대처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내외통제성향의 효과를 주장하는 Lefcourt(1984) 등의 견해와 일치한다. 그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효과가 내적통제자에게 나타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내적통제자들은 외적통제자들 보다 더 큰 부적응을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내적통제자들은 외적통제자들 보다 유능하고 효율적이며, 환경통제와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들은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 수단으로서 개인에 의해 추구하고 활용되는 효과적인 대처 자원이라고 볼 때, 내적

통제자들은 이러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능력이 있으나 외적통제자들은 활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Kessler(1994) 등이 쌍둥이 연구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과 사회적 지원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성격,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과 사회적 지원이 개인의 성격에 따라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는 Furukawa와 Sarason(1998)의 주장과는 불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지원의 양만을 측정했기 때문이 다른 설명이 가능하다. 즉, 어떤 사람은 특정 스트레스에 대해 제공받은 사회적 지원의 유형이 다를 수도 있고, 내외통제성향에 따라 지원을 제공받은 후에 그들이 행하는 해석과 행동이 다를 수도 있다. 개인의 내외통제성향 측면에서 본 연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의 효과를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 사회적 지원의 유형과 그것을 제공받은 수용자의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즉,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수로 생각되는 사회

적 지원의 유형과 개인의 내의통제성향을 서로 결합시켜 보면 그들의 상호작용을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지원을 독립변인으로, 성격변인, 대처행동, 스트레스의 인지 및 평가변인을 매개변인으로, 그리고 건강 및 생활 만족도 혹은 스트레스 증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사회적 지원의 효과를 전체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 느낀다.

참고 문헌

- 김의철, 박영신 (1997).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적응 결과: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 심리학회지: 건강, 2(1), 96-126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 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경희 (1995).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영자 (1996).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 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 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전검구, 김교현 (1991).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제어 이론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137-158.
- Bagozzi, R. P. (1980). *Causal Models in Marketing*, New York: Wiley.
- Barrera, M. Jr. (1986). Distinctions between social support concepts, measures, and model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9, 413-445.
- Cohen, S., & D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99-125.
- Cohen, I. H., & McKay, G. (1983). Social support, stress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Handbook of Psychology and Health*, 4, 253-267.
- Cohen, S., & Same, L. (1985). Issues in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social support. In S. Cohen, S., & L. Same(Eds.), *Social Support and Health*(pp. 3-22), Orlando, FL: Academic Press.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Cutrona, C. E. (1986). Objective determinan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349-355.
- Griffith, J. (1985). Social support providers: Who are they? Where are they met? and the relationship of network characteristics to psychological stres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6, 41-60.
- Heller, K., & Swindle, R. W. (1983). Social network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ping with stress. in R. D. Felner, L. A. Jason, J. Moritsugu, & S. S. Farber(Eds.), *Preventive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in Community Intervention* (pp. 87-103). New York: Pergamon press.
- Henderson, A. S. (1977). The social network, support and neurosis: The function of attachment in adult lif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6, 574-583.
- Henderson, S., Byrne, D. G., & Duncan-Jones, P. (1981). *Neurosis and the Social Environment*. Sydney, Australia: Academic Press.
- Holahan, C. J., and Moos, R. H. (1981).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es: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 365-370.
-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Adison-Wesley.
- House, J. S., Landis, K. R., & Umberson, D. (1988). Social relationship and health. *Science*, 241, 540-545.
- Husaini, B. A., Neff, J. A., Newbrough., & More, M. C. (1982). The stress-buffering role of social support and personal competence among the rural married.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 409-426.
- Kessler, R. C., Kendler, K. S., Heath, A., Neale, M. C., & Eaves, L. J. (1994). Perceived support and

- adjustment to stress in a general population sample of female twins. *Psychological Medicine*, 24, 317-334.
- Kobasa, S. C., & Puccetti, M. C. (1983). Personality and social resources in stress resistanc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5, 839-850.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efcourt, H. M., Martin, R. S., & Saleh, W. E. (1984). Locus of control and social support: Interactive moderators of 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378-389.
- Mitchell, R. E., and Trickett, E. J. (1980). An analysis of the effects and determinants of social network.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16, 27-44.
- Procidano, M. E., and Heller, E. (1983). Measure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amily: Three validation studi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 1-24.
- Riley, D., & Eckenrode, J. (1986). Social ties: Subgroup differences in costs and benefi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770-778.
- Roos, P. E., & Cohen, I. H. (1987). Sex roles and social support as moderators of life stress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76-585.
- Sandler, I. N., & Lakey, B. (1982). Locus of control as stress moderator: The role of control perceptions and social suppor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
- Sarason, I. G., Sarason, B. R., & Furukawa, T. (1998).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to a novel social environmen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London, Spring, 1998.
- Sarason, I. G., Levine, H. M., Basham, R. B., & Sarason, B. R. (1985). Assessing social support: The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27-139.
- Sarason, B. R., Sarason, I. G., & Pierce, G. R. (1990).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defining and assessing social support. In B. R. Sarason, Sarason, I. G., & Pierce (Eds.), *Social Support: An Interactional View*. New York: John Wiley & Sons.
- Sarason, I. G., & Sarason, B. R. (Eds.). (1985).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Dordrecht, the Netherlands: Martinus Nijhoff.
- Schaefer, C., Coyne, J. C., & Lazarus, R. S. (1981). The health-related function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Behavioral*, 4, 381-406.
- Terry, D. J., Rawle, R., & Callan, V. J. (1995).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adjustment to stress: The mediating role coping. *Personal Relationships*, 2, 97-124.
- Thoits, P. A. (1982).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 145-159.
- Tilden, V. P., & Galyen, R. D. (1987). Cost and conflict: The dark side of social support.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9, 9-18.
- Turner, R. J., Frankl, G., & Livin, D. (1987). Social support: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in J. Greenery(Eds.), *Research in Community and Mental Health*, Greenwich: JAI Press, 67-111.
- Vaux, A. (1988).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Intervention*. New York: Praeger.
- Valecha, G. K. (1972). Construct validation of internal locus of control as measured by an abbreviated 11-item IE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Wellman, B. (1981). Applying network analysis to the study of support. in B. H. Gottlieb (Eds.), *Social Network and Social Support*, Beverly Hills: Sage, 171-200.

1차 원고 접수 : 1999년 12월 5일

최종 원고 접수 : 2000년 3월 2일

A Study on Structural Dynamics of Social Support's Effect : Focused on the Joint Moderating Effects of Locus of Control

Yong-Sung Choi and Kwang-Sun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stress and coping behavior among 376 students(154 students depending on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122 students depending on external locus of control). Using the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LISREL-VIII), the relationship among three constructs were investigated. There was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f social support on coping behavior and indirect effect through stress situation. Also, social support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stress and stress variable had a direct effect on coping behavior. In other words, it was founded that social support is used to coping behavior as coping resource as well as relax that as effect to evaluation and cognition to stress situations. This result is support to stress appraisal model by Cohen, Wills(1985) & Lazarus, Folkman(1984). Causal relationship of each variables was not difference depending on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studies that deny personality variable about effect of social support recently. A men evaluate to social support and stress situations regardless of depending on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and that evaluation was founded that important variable to decide coping behavior.